

시라주딘 말레이시아 국왕 내외 주최 국민만찬 답사

존경하는 사이드 시라주딘 국왕 폐하 내외분,

그리고 귀빈 여러분,

우리 내외와 일행을 위해 이처럼 성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.
니다.

어제 저녁 이곳에 도착했습니다만, 말레이시아의 발전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. 작년에는 7.1% 성장과 무역규모 2,3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. 또 집중적인 인프라 투자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으로 동남아의 산업과 물류 허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

말레이시아의 높아진 위상은 국제사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. 비동맹회의와 이슬람회의기구 의장국으로서 개도국 간 실질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. 특히 다음 주에 열릴 동아시아 정상회의 출범을 주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며,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 이와 함께 다민족 국가인 말레이시아가 이뤄 낸 국민적 통합도 세계의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.

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'말레이시아 볼레' 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. 폐하

의 지도력과 말레이시아 국민의 저력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.

국왕 폐하,

우리 두 나라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친구입니다. 지난해 교역규모가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. 말레이시아가 ASEAN 국가 중 우리의 첫번째 교역대상국이 된 것입니다. 또한 매년 17만 명의 양국 국민이 왕래하고 있고, 우리 드라마·영화를 비롯한 문화교류도 활발합니다.

오늘 압둘라 아흐마드 바다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. 이번에 중소기업협력약정을 비롯해서 모두 6건의 약정을 체결할 것입니다. 기업인을 중심으로 한 민간협력도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

우리는 이 같은 실질협력이 정치·안보·문화 분야 등으로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며, 폐하의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

내외 귀빈 여러분,

폐하 내외분의 건강과 말레이시아의 번영, 그리고 우리 두 나라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합니다. 감사합니다.